

POLITICS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전남의대 특별법’ 발의

전국 장수마을 1위는 ‘고흥군’
고창·보성·순창 등 5곳 10위 안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고흥군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 보건복지위)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20년 5624명에서 지난해 7740명으로 37.62%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1389명(17.95%), 여성은 6351명(82.05%)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57배 이상 많다.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 71명, 경북 영양군 60명, 충남 부여군 58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5곳이 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창군이 56명으로 5위였고, 보성군이 56명으로 7위, 전북 순창군이 55명으로 8위, 곡성군이 54명으로 10위였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0명이며, 다음으로 부산 강서구 2명, 울산 중구·울산 남구 5명, 경남 창원시 6명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청소년 비만을 ‘전국 최고’
박승희 의원 “건강 불평등 우려”

소아와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지역 초·중·고교생들의 비만율이 3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수도권과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과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우려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대비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비만율은 15.1%에서 지난해 18.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생의 비만율은 13.7%에서 18%, 중학생은 14.9%에서 16.7%,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각각 상승했다.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비만율은 18.3%이지만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은 29.3%에 달한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4.6%로 가장 높다.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25.8%)이고, 이어 경기(27%), 서울(27.2%) 순으로 낮았다.

박희승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며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6%, 농촌은 33.1%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수준별 비만 유행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행률은 39.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유행률은 30.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2.5%, 높은 그룹은 17.9%로 크게 낮아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서미화, 전남도 숙원이자 이 대통령 국정과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에 전남뭇 배정돼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발의돼 전남 도민들의 30년 염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힘이 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을 지

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임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은 1990년대부터 의대 유지를 위해 힘써왔고 지난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부칙이다.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평가의 평가·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며 “연후 직후 시정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추석한가위 한마당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 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역시민속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추석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흥분불부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도, ‘K-김’ 글로벌 전략 속도 낸다

신규 김활성처리제 공급·국가전략산업 육성 연구구역 등 총력

전남도가 세계 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K-김’ 글로벌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K-김 수출 증가와 작황 호조로 2025년산 물김 생산액은 8404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위판고를 달성했다. 2026년산 물김 또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식장 6만 5000ha에 김발 92만 책을 설치해 약 50만t의 물김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양식장에서는 그물에 김 종자를 현재 채도 작업이 한창이다.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40% 가량 채도를 완료했으며 10월 중순까지 채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물김 첫 수확은 10월 25일 쯤으로, 지난해 보다 5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김 양식 어업인의 40년 숙원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신규 김활성처리제 개발, 대규모 현장 시험을 완료했다. 양식어가 공급을 위한 해수부 고시 개정을 건의해 현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전남도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구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립김산업진흥원, 국제 수출단지 조성 등 K-김 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고품질 물김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인증 부표, 양식 자동화 장비,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지원 등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올해 좋은 품질의 김이 많이 생산돼 어가 소득이 증대되고 어촌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기길 바란다”며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잇는 전주기 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여 우리나라 김 산업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 올해 누적 관람객 300만 돌파

추석 연휴 관람객 ‘인산인해’
체험·포토존·공연 등 ‘풍성’
일 평균 5만명…외국인 비중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연휴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정원을 찾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웃음과 여유를 나누며 활기찬 명절의 정취를 더했다.

‘한복데이’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노리개와 복주머니를 선물하며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겼고, ‘추석 인생네컷’ 포토 이벤트 역시 호응을 얻었다. 99만㎡에 이르는 순천만국가정원 곳곳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으로 가득 차, 온종일 웃음소리와 활기가 끊이지 않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전통놀이 체험도 인기였다. ‘대형 보름달 포토존’에서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연휴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다.

는 소원을 비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대형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마당에서는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명절의 흥을 만끽했다. 여기에 전통 기악과 현악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정원은 음악과 웃음, 그리고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며 순천만국가정원은 세대와 시간 도전을 AI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언어 장벽 없이 편안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8일 오후 순천만국가정원은 올해 누적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

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00만번째 입장객은 서울 은평구에서 방문한 3대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한 정원도시’ 순천을 상징하는 특별한 순간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순천시는 외국인을 위해 영문 리플릿뿐 아니라 실시간 도슨트, AI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언어 장벽 없이 편안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농식품부 전남 이전, 농업위기 해법”

신정훈 의원 추석민심 전하는 SNS에 밝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나주·화순·사천)은 8일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있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부산항과 남해안이 라는 정책 현장에 맞춰 이전한

것처럼, 농식품부 역시 농정의 중심지인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 전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자,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K-푸드, AI 농업 등 첨단농업 발전의 전기가 되고, 새 정부가 추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농업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부처의 이전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농식품부 전남 이전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5국 3특 전략 중 농남권이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 공항으로 날개를 단 만큼, 호남권에도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수입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이 모두 모여 있다”며 “선원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선장만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부산항과 남해안이 라는 정책 현장에 맞춰 이전한

전남도 개발 쌀 ‘새청무’ 수확 돌입

재배 면적 62%·전국 단일품종 17% 점유
전국유통망 공급확대…미국 등 수출 성과

대한민국 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도 주력 품종인 ‘새청무’ 쌀이 본격 수확기에 들어섰다. ‘새청무’는 밥맛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해 전남도가 집중 보급하고 있는 전라품종이다.

새청무 쌀은 지난 2017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전남 벼재면적의 62% 전국 단일품종 17%를 점유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재배 안정성을 기본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뛰어나고 찰기가 좋으며, 쌀알이 크고 윤기가 나는 편으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과 재배농가들에게 점차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청무 쌀은 ‘제26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휩쓸기도 했다. 올해 23번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중 9개의 브랜드 쌀이 ‘새청무’ 품종이다.

밥맛 좋은 쌀 선택의 기준이 되고있는 단백질 함량도 최저 5.62%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또한 단백질 함량 최고 등급인 6.0%를 평균적

으로 나타내고 있다. 2027년부터 쌀 단백질 함량 의무화가 시행되면 전남 쌀 유통 확대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새청무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압생김밥에 130t의 새청무쌀을 공급했으며, 샘플쌀 제공과 매장 현판(스티커) 제작 등을 지원해 전국 유통망과 연계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CJ제일제당과 새청무 쌀 상품화 업무협약을 맺고 1만t 공급, 햅반을 출시했다.

새청무 쌀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몽골, 프랑스 등 약 1008t이 수출됐으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시장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새청무 쌀은 전남 농업인이 정성으로 길러낸 대표브랜드다”며 “맛과 품질 모두 우수한 새청무 쌀이 전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추석 이후 쌀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수도권 대상 쌀 소비촉진 활동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육외 광고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